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전시장 설명 원고

전시를 열며

INTRODUCTION

국립중앙박물관은 프랑스 장식예술박물관과 함께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를 개최합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단추’를 중심으로 의복, 회화, 판화, 서적, 사진, 공예 등 1,800여 건의 전시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단추라는 작고 평범한 소재가 어떻게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제작된 이 단추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단추는 2011년 프랑스의 중요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로익 알리오(Loïc Allio)의 단추 수집품입니다. 이 단추들은 수집가의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단추를 만들고 사용했던,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아 간직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체취와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옷에서, 화려하게 때로는 수수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단추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proud to present “Unbuttoning French Fashion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ies.” This exhibition, which was organized with Les Arts Decoratifs in France, presents over 1,800 exhibits containing 18th century to 20th century “buttons,” which include garments, paintings, prints, books, photographs and crafts. This special exhibition is a very exciting journey, illustrating how small and ordinary materials called “buttons” are a reflection of French history and culture. Made from a variety of materials and techniques, these buttons allow us to view history, culture, individuals and society from a new perspective that we may never have imagined. The buttons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are from the collection of Loïc Allio, which was designated a French National Treasure in 2011. These buttons have been the subject of enormous interest and enthusiasm from collectors, and also contain stories from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who made and used them, or inherited and protected them. We hope this will be a special experience for you to listen to the story of a button that held a splendid or perhaps modest position in someone’s clothing.

이미지로 본 프랑스 근현대 복식

French Costume as Image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사회의 제도, 규범, 가치를 반영한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복식(服飾) 문화를 살피는 것은 과거 사람들의 내밀한 마음을 살펴보는 일이고, 또한 한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꿰뚫어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17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의 프랑스 사회를 표현한 이 회화 작품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복식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장식에 있어서 단추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보게 합니다. 단추는 그것이 달려 있는 옷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에서, 단추의 위치나 사용 방식 등은 각 시대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추는 프랑스 근현대 복식 문화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로 여겨집니다. 18세기에는 궁정예복의 값비싼 장식물로, 또는 혁명의 구호를 담은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19세기에는 부르주아 사회의 규범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에는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개별적인 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단추의 쓰임새를 살피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옷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입는 이의 지위와 역할, 더 나아가 한 시대가 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 단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단추로 시대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Wearing clothes is a personal act, but also a complex act that reflects society's institutions, norms, and values in a broad sense. Looking at costume culture is a review of the innermost minds of people in the past, and a reflection of the most essential meaning of an era. These paintings are an expression of French society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o the 1950s, and show the atmosphere of the times and the flow of the costumes. They also provide a new look at the meaning of "buttons" in decoration. These buttons can never be separated from the clothes they were hanging on. In both men's and women's clothing, the location and usage of the buttons reflect the tastes and styles of each era. For this reason, buttons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artifacts representing the French modern culture of costume. During the 18th century, buttons were used as precious decorations of court attire, or as a political message containing the slogans of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buttons became an important ornament for the norms of the bourgeois society. During the 20th century, buttons were born as a new artwork that brought out the clothes from the hands of artists and designers. The use of the button itself shows the definition of the clothes. The social status and role of the wearer, as well as the numerous voices that an era pursued, are contained in these buttons. With these little buttons, we would like to unbutton the meaning of an era.

단추의 황금기 The Golden Age of Buttons

17~18세기 프랑스는 강력한 정치력으로 유럽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는 유럽 귀족의 필수 언어가 되었으며, 화려한 궁정 문화는 유럽 군주들의 규범이자 취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시작한 계몽사상은 근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18세기는 절대 왕정에서 시민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특히 복식 문화에서 두드러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복식 문화의 중심에 단추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군 전쟁(11~14세기)을 계기로 서양에 처음 들어온 단추는 본래의 기능적 역할은 약해지고 점차 화려한 장식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주문 제작한 단추들은 값비싼 옷보다도 더욱 귀하게 거래되었습니다.

18세기는 ‘단추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온갖 종류의 단추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초상화, 장르화, 풍자화 등의 세밀화 단추, 광물, 식물, 곤충 등을 담은 뷔퐁(Buffon) 단추, 수수께끼나 격언, 상징적 문구를 넣은 단추, 외설적인 그림이나 상형 문자를 담은 단추, 프랑스 혁명이나 노예 해방 등 신념과 시대상을 반영한 단추에 이르기까지 형태, 소재, 문양, 제작 기술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보는 이를 즐겁게 하고 논평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밝히던 18세기의 단추는 개인과 사회를 담은 가장 작은 세계였습니다.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rance led Europe with strong political power. The language of France had become an essential language of the European nobility, and the culture of the French court had become the norm and taste of European monarchs. The Enlightenment that started in France provided an important framework for the formation of modern civil society and spread throughout Europe. Historically, the 18th century in France was a period of upheaval leading from absolute monarchy to the French Revolution. The changes in this period are especially prominent in the costume culture. Interestingly, the button appears at the center of this costume culture. First introduced to the West through the Crusades (11th–14th centurie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button weakened and was now used as a splendid decoration. The precious buttons that were competitively ordered and produced to show wealth and power were traded and valued more than expensive clothes.

The 18th century was a time when many kinds of buttons were produced; this era was called “The Golden Age of Buttons.” Some examples were miniature buttons(including portraits, genre and satire), *Buffon* buttons(containing minerals, plants, and insects), symbolic phrase buttons(with riddles and proverbs), picture buttons(including obscene pictures and hieroglyphics), and belief buttons(including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liberation of slaves). The shapes, materials, patterns and fabrication techniques of these buttons go beyond our imagination. The 18th-century button that pleased the viewer, provided inspiration to critics and sometimes expressed one’s beliefs. The button was the smallest world that embraced individuals and society.

시대의 규범이 된 단추 The Button that Became the Norm of the Age

19세기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제정^{帝政}에서부터 입헌군주제, 다시 공화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영국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방직이나 의류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럽의 복식 문화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자본주의는 더욱 발달하였으며, 부유한 신흥 부르주아들은 사회의 주도세력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리와 같은 대도시는 더욱 크게 성장하였으며, 도시의 산업노동자 비율도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이 식민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식민지 경영으로 얻은 부^富는 유럽 사회를 더욱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 다수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사이의 발명품을 생각해 볼 때, 19세기의 문화는 오늘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의 거울로도 불리는 단추 역시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합니다. 나폴레옹의 제정기에 발전한 제복의 단추는 오늘날 군복이나, 직업복, 교복 등과 같이 직업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해진 남성복에서 단추는 유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미어야 하고 또 어떤 단추를 풀어야 하는지는 멋쟁이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절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나설 때 단추가 달린 셔츠나 겹옷을 입는 관습은 19세기의 복식 규범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France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Politically, Napoleon's first Empire became a constitutional monarchy and a republic. Additionally,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France, which started later than England, developed around the textile and garment industries which lead to the fashion of European costumes. Along with mass p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 wealthy emerging bourgeoisies class became the leading forces of French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big cities such as Paris grew even larger, and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workers in cities also increased rapidly. It was also during this period that European states embraced imperialism and entered colonial competition with each other. The profits from the colonies resulted in European society becoming even more prosperous.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products we use are invention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the culture of the 19th century remains relevant to today. Buttons, also called mirrors of society,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Napoleon's uniformed buttons developed during the period are used today to represent jobs and belongings, such as military uniforms, occupations, and uniforms. In addition, in the men's wear of the 19th century, the button was the most important decoration. How to adjust and at what position to unbutton it, became essential manners for most men, even if they were not dandies. The custom of wearing a shirt or jacket with a button at all times, and in particular for important occasions, is by no means independent of the 19th century dress code.

예술과 단추 Buttons with Art

189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전까지 프랑스는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절)를 맞이합니다. 20세기 초, 파리를 중심으로 예술과 음악, 문학, 패션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고 흥취 넘치는 새로운 문화가 꽃을 피웠으며, 밤새 불을 밝힌 도시는 현재를 만끽하려는 이들로 넘쳐 났습니다. 가시적이고 화려하면서도, 단순하고 추상적인 ‘모던’ 예술이 유행하였고, 곳곳에 붙은 상업 포스터는 유럽의 경제적 호황과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세기의 출발은 세기말의 불안감을 가득 안은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의식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물질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며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발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사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대 분위기를 가장 먼저 반영한 것은 복식 문화였으며, 패션의 분야에서는 모든 대담한 시도가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복은 남성복보다도 더 급격하게 변화하였는데, 활동적이고 양성적인 느낌의 여성 의복은 디자인뿐 아니라 단추의 위상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남성의 의복 역시 실용적이고 단순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현대 의복 디자인에서 단추는 실루엣을 살리거나 옷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단추를 매우 매력적인 소재로 여기고 단추를 작품의 경지로 끌어 올렸습니다. 단추는 예술가들의 내면과 사상을 반영한 중요한 표현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단추들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의 발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From the 1890s until the First World War (1914–1918), France welcomed the “Belle Epoque” era, which means “beautiful times”.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 new culture of freedom and fascination flourished in all areas of art, music, literature, and fashion, especially in Paris. The visual and colorful, simple and abstract ‘modern’ art was popular, and the proliferation of these popular tastes as commercial posters reflected the recent European economic boom. On the other h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s considered to be an uncertain age, filled with anxiety regarding the end of the century. In a material civilization that developed at a speed faster than human consciousness, people wandered around feeling anxiety and fatigue. The two world wars that broke out in this atmosphere completely changed the appearance of society. The first thing that reflected the atmosphere of the era was costume culture, and every daring attempt was possible in the field of fashion. In particular, women’s clothing changed more rapidly than men’s, but active and positive women’s clothing emphasized not only design but also buttons. Secondly, men’s clothing changed in a practical and simple way. In modern garment designs, buttons have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to emphasize or balance the silhouette. Artists and designers considered buttons a very attractive material and invested time and energy to create artistic buttons. Buttons became a medium of expression that reflected the nature and thought of artists. These artistic buttons also provid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creating the modern values of personal freedom and creativity.

인생의 단추

A Button of Life

1894년, 프랑스 역사를 뒤흔든 ‘드레퓔스 사건.’ 첩자로 누명을 쓴 유대인 장교 드레퓔스에게 가장 먼저 내려진 선고는 단추와 계급장을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강제로 단추를 떼어내는 행위는 인격을 모독하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지식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항거로 결국 누명을 벗었지만, 드레퓔스의 단추는 오늘날까지도 인권과 자유를 상징하는 역사적 단추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단추의 이면에는 이처럼 역사적 상흔이나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단추는 역사의 빛과 그림자, 인생의 희로애락을 비추어주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은 단추를 진지하게 살피는 일은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또한 이를 만들거나 지냈던 누군가의 삶을 만나보는 설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단추를 발견하기 위해 여전히 탐험 중이라는 한 수집가의 이야기는 새삼 우리 삶에 숨어 있는 저마다의 인생 단추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In 1894, the Dreyfus Affair shook French history. As a Jewish officer who was framed as a spy, the first sentence upheld against to Dreyfus, was the deprivation of a military button and a rank. The act of forcibly removing the button was a most humiliating punishment. Although the conviction was eventually lifted after the protest of intellectuals and many others, Dreyfus' button has become a historical button that symbolizes human rights and freedom to this day. On the back of this gorgeous button, there are historical scars and lessons. Buttons become the mirrors of the times and reflect the light and shadow of history and the joy and sorrow of life. Looking at these little buttons seriously is an interesting way to challenge us to look at ordinary life differently. It can be a thrilling experience to encounter the life of someone who created or had a button. The story of a collector who is still exploring to discover the buttons of life allows us to think about our own a button of life hidden in our lives.